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출발에 나서

보도시점 배포 시 배포 2023. 9. 1.(금)

금융시장 현안 점검·소통회의 개최

- 분야별 점검을 위한 2차 회의, 거시경제 여건과 주요산업 현황 점검 -

- 만기연장·상환유예 차주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 진행 중 -

'23.9.1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**금융감독원,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 전문가** 등과 함께 **금융시장 현안 점검·소통회의**를 개최하고, **향후 거시경제 여건과 위험요인, 주요 기간산업의 업종별 현황 및 전망**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.

- **(일시·장소)** '23.9.1(금) 10:0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**(참석자) 금융위원회**(부위원장, 금융정책국장 등), **금융감독원**, **한국개발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산업연구원, LG경영연구원**

오늘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**미국**과 **유로존**을 중심으로 **글로벌 경기가 개선**되고 있으며, 하반기 이후 **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**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였다. 그러나 **세계 경제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상황**이며, 특히 **미국의 긴축 장기화, 중국 경제 부진** 등의 하방 요인으로 인하여 **국내 경기 회복 속도가 둔화될 우려**가 있다고 평가하였다.

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지속된 **저금리 기조**와 **완화된 금융환경** 등으로 **기업의 잠재 리스크가 누적**된 가운데, 최근 **생산비용 증가, 고금리·긴축적 금융환경** 등으로 여건이 변화하면서 **한계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신용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**는 분석도 제시되었다.

김소영 부위원장은 오늘 회의에서 코로나 이후 **불확실성이 높은 경제상황**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**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어 순항할 수 있도록** 돕는 것이 **금융의 중요한 역할**이라고 언급하였다.

김 부위원장은 금년부터 여러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**정책금융지원 협의회**①를 구성하여 산업 현장의 수요에 기반한 정책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, 특히 **국가 전략산업에 대해 지원역량을 집중**②해 나가고 있다고 밝히면서, 최근('23.8.16.) 발표한 **수출지원대책**③ 등의 차질 없는 집행을 통해 **금융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을 확충**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① 산업부처(산업/과기/중기/국토/해수/문체/복지부) **정책 수요와 유기적으로 연계**하여 정책금융지원 → **'23년 총 205조원** 정책금융 공급 예정
② 5대 중점분야(반도체, 이차전지, 바이오헬스, ICT신산업 등 26개 업종)에 **91.8조원** 지원
③ ▲대기업 동반 해외진출 특화상품(4.1조원+@), ▲20대 수출전략분야에 대해 41조원 정책금융 공급 ▲수출기업 전용 정책금융 상품 13.3조원 지원 ▲무역금융 수수료 인하 등

또한 김 부위원장은 기업이 **직접금융시장 참여가 확대***되는 등 **실물경제와 금융시장간 상호연계성**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만큼, **주요 산업의 영업 환경과 재무 상황을 적시에 파악**하고 **신용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**하는 것은 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**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**이 **기업 신용위험 모니터링** 등에 대한 **빈틈없는 대응 태세**를 갖추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* 기업 직접금융 규모(조원): ('18)169.8 ('19)175.5 ('20)194.5 ('21)231.5 ('22)204.6
('23.1~7월) 140.6(전년동기대비 +3.5%)

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불확실성의 시기에는 **각 경제주체들이 작은 충격에도 민감하게 반응**하여 시장 안정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만큼, 가짜뉴스·허위정보 등이 우리 시장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**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시로 시장과 소통**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.

특히 최근 이슈가 된 **9월 만기연장·상환유예 지원 종료 논란**과 관련하여, 이는 소상공인·자영업자에 대한 만기연장·상환유예 조치의 세부 내용이 충분히 알려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**사실과 다른 불필요한 논란**이라고 언급하면서, 소상공인·자영업자 차주에 대한 지원은 **9월에 종료되는 것이 아니며, 만기연장은 '25.9월까지 자동 연장**되고, **원금·이자 상환유예 차주**에 대해서는 **금융회사와 협의하여 작성한 상환계획서**(98.1% 작성완료)에 따라 **최장 1년 거치**(유예된 이자 한정) **후 5년 분할상환**을 지원함으로써 **질서 있는 연착륙**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.

김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이 **차주의 부담을 최소화**하면서 **채무 문제를 순차적으로 해소**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는 만큼, **위기설 등 과도한 우려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**고 언급하였다.

오늘 회의는 지난 8.22일 중국 부동산 시장 및 외환 건전성 점검에 이은 **두 번째 회의**로,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 함께 **분야별 위험 요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**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	책임자	과 장 김성준 (02-2100-2850)
		담당자	사무관 김수아 (02-2100-2906)
	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	책임자	국 장 김형원 (02-3145-8170)
		담당자	팀 장 김정훈 (02-3145-8180)
	금융감독원 신용감독국	책임자	국 장 김충진 (02-3145-8370)
		담당자	팀 장 김태욱 (02-3145-838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